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일본 성마리아병원 연수기-

박 영 자 수녀

<성모병원 방사선과>

김포공항을 이륙한지 1시간쯤 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곳 일본의 남부 도시인 후쿠오카 공항에 우리 연수생 8명(약사 1명, 영양사 1명, 임상병리사 3명, 방사선사 3명)은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연수교육 담당인 쯤다선생께서 기쁘게 반겨주었으며, 준비된 차를 타고 약 1시간 걸리는 목적지인 구르메시에 위치한 성마리아 병원을 향해 달리는 기분은 상쾌하였다.

질서 정연하고 깨끗한 거리와 도로의 푸르고 싱싱한 나무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집집마다 아담하고 탐스런 나무들이 담장으로 싸여져 다정다감하게 보였다. 차창밖으로 펼쳐지는 아름답고 밝은 대자연을 만끽하며 병원에 도착하였다.

이 병원은 개인병원으로서 재단 이사장의 뜻



왼쪽에서 세번째가 필자

을 따라 의료법인 눈(雪)성모회의 성마리아를 특별히 가톨릭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의료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1952년에 소규모의 의료시설로 시작하였으며, 병원 명칭을 성마리아 병원으로 하여 믿음과 신뢰로 오늘에 이르기 까지 국내외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계속 이룩하고 있으며 특히 신생아실과 노인복지센터 운영이 잘 되어 있었다.

또한 연수생들을 위한 5층 건물인 기숙사는 깨끗하고 조용한 독방과 휴게실 등이 갖춰져 있어서 연수생들을 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침마다 직종별로 책임자들이 모여 부서의 업무보고를 하였다. 조희시간에 각자가 일어로 소개인사를 한 다음 병원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고 가는 곳마다 성모자상과 액자들이 많아 마치 가톨릭 병원과 같은 느낌이 들어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많은 것을 보고 들었다. 또한 별도로 아담하게 지어진 성당의 내부에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양쪽 벽에는 14처가 빈틈없이 걸려져 있어 엄숙하고 긴장이 감도는 듯한 무거운 느낌이 들었다. 직원 1,600명중 신자가 15명 정도이고 매일 미사에는 정해진 직원 남, 여 두명과 외부신자 몇 사람뿐이었다. 매년 11월이 되면 이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성당에서 신부님이 집전하는 위령제사 행사도 가지고 있었다.

이 병원은 별도로 된 건물들이 많아 처음에는

찾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했으나 안내표시가 잘 되어 있어 어려움이 없었다.

본관 1층에는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핵의학과가 분리되어 있으며 과의 구성은 주임 과장은 한명이고 그 외 각각 책임과장, 그리고 기사장은 진단, 치료, 핵의학과를 총괄 관리하여 그 책임과 업무가 막중하게 느껴졌다.

방사선과 입구에는 은은한 조명으로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 접수실이 있고 넓은 복도와 공간에는 각각 촬영실 배치와 안내표시가 잘 되어 있어 찾아오는 환자들이 불편 없이 편하게 검사를 받고 간다.

6대의 일반 X-Ray 기계와 소아를 위한 기계도 있으며, 위장, 대소장실, 최첨단의 현상기도 3대나 있었다. 초음파실 CT실, 심혈관실, 내시경실, 그 외 특수검사실과 자기공명실, 핵의학과가 있고 종합검진센터는 신축된 별관에 약 60명 정도 검진을 오전 중으로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었으며, 또한 판독을 즉시 함으로 중요한 부분을 그 자리에서 더 짚을 수도 있고 분실되는 필름이 전혀 없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외부 종합검진 때 사용되는 두대의 대형 이동검진 버스 내부에는 꽤 X-Ray 기계는 기본이고 위장 투시기계까지 설치되어 있고 각 사무실을 이용하여 초음파, 심전도, 청각검사, 안압, 그 외 필요한 병리검사 등을 하고 있었다.

깨끗하고 친절하고 부지런한 나라! 과연 그렇게 생활하되어 있었다.

아무리 거동이 어렵고 괴로워도 호명할 때까지 불평, 짜증, 재촉하는 환자나 보호자가 없었으며 조용하게 기다리는 태도와 병실환자들이 방사선과에 올 때는 반드시 두명의 간호사나 보조원 아니면 학생들이 모시고 와서 방사선사와 같이 옮기기도 하고,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여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는 책임완수정신과 근무 중

에 말이나 태도가 단정하고, 예의바른 행동으로 서로 서로 협조하여 도우며 신속한 움직임으로 전 직원이 환자 한분 한분에게 가족처럼 아낌없이 사랑으로 정성스럽게 보살핌과 병실 환자들 식사까지도 간호사들이 직접 배식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지식이나 기술은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는지만 장비, 공간, 물품, 인성, 물질적인 자원이 풍부하였다.

그러나 결코 새로운 기계나 일반물품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노후된 모든 기계, 장비, 물품들 그리고 고가 장비가 9~10년된 것도 있지만 폐기 처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실속적이고 낭비성이 없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다.

연수라기보다는 견학이 더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짜여진 연수일정속에서 첫날은 좀 어색하고 긴장이 되었지만 친절한 안내와 설명으로 하루가 지날수록 직원들과 사귀므로 친숙해졌으며 또한 진정한 마음으로 "sister" 하면서 자판기 음료수를 한 컵 주시는 의사 선생님의 부드러운 미소가 마치 인자하신 아버지와 같았으며 항상 명랑하고 밝은 웃음으로 예쁜 핑크색 작업복 차림과 간단하고 편리한 흰 운동화를 신고 인사를 하면서 사뿐사뿐 부지런히 일터로 가는 청소부들, 그리고 우리들도 출퇴근시에 만나는 직원들에게 서투른 일어로 인사를 하면서 스쳐 지나는 동안 서로가 알게되어 나눔도 가졌다.

서로의 봉사와 희생으로 사랑안에서 연수를 마치게 됨을 감사하며, 이런 기회가 계속 활성화 되어, 견해를 넓히고 앞으로의 향상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특별히 우리들에게 연수기회를 준 한국 가톨릭병원 협회에 감사드리며 또한 무사히 귀국함을 성모님께 감사드린다.